

지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간에, 그 사태는 일제 식민 통치와 동서 냉전 체제의 부산물인 역사 변동기 정치적 변란이었음에도, 그 사건을 폭동으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나 대책이 전무했으며, 그로 인해 도민의 정신적 상처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구나 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도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렇게 사태에 대한 관심까지도 철저히 통제되고 금기시되어 30년을 넘겨왔다. 이런 점에서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도 철저히 주변적이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태에 대한 관심과 논의나 연구도 특수한 분야나 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사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나 처리도 주변성의 범위 안에 갇혀 있다.

6. 제주 사태와 주변성, 그리고 그 논의를 위한 제언

1) 제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주변적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적 정황이 아니라,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2) 제주 4·3사태도 정치적 혁명적 전략적 측면에서 주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태 종식 후의 논의나 인식의 틀과 방법까지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4·3사태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그 방법과 논의를 개방하여 중심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성과도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 주도하여, 지금까지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다양한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검토 평가하여, 좀더 진전된 결과를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소그룹들이 연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濟州島 住民의 正體性

金 恒 元(濟州大)

I. 序 論

1. 研究目的

濟州島住民들은 韓半島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생활해오는 동안 육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예측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은 누구인가?>, <제주도 주민은 무엇인가?>, <제주도에 특이한 것 또는 독특한 것은 무

엇인가?), <제주도 다운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이다. 正體性(identity)이란 “변화나 相異性으로 부터 구별되는 同一性이며” “다양한 실례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거나 포괄적인 성격의 同一性이고 人性的 單一性和 連續性이다.” 이 正體性이란 용어는 同一性, 連續性, 소속감 및 一體感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은 제주도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제주도 주민이라는 集團性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集團環境과 지속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濟州島의 言語, 民俗, 社會·文化, 政治·經濟 영역에서 제주도적인 特性을 찾아내고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正體性和 自我正體性的 有無를 밝히려는 것이다.

2. 研究方法

1) 分析模型의 設定

濟州島 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과 構想에 의하여 正體性構造의 分析的 模型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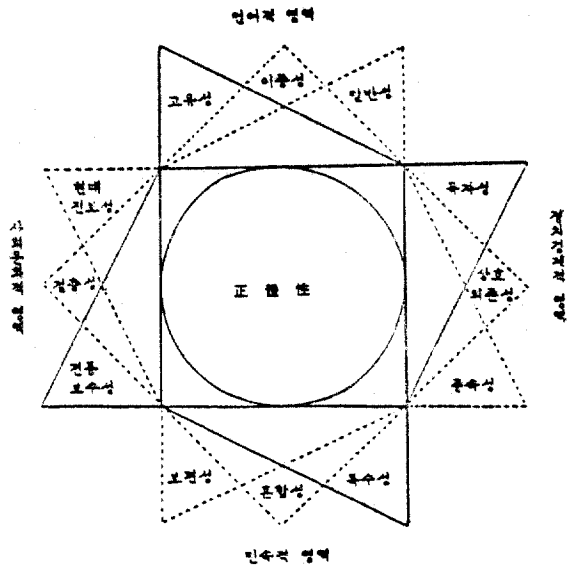
自我正體性은 주관적 측면인 개인적 정체성과 객관적 측면인 心理社會的 正體性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심리사회적 정체성에 속하는 것이 地域正體性이다. 濟州島 住民의 地域正體性은 濟州島에 대한 소속감 내지 一體感이며 共有 特性이고 連續性이다.

濟州島 주민의 정체성은 言語, 民俗, 社會·文化, 政治·經濟 영역에서 나타나리라고 가정하여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언어적 영역은 고유성, 이중성 및 일반성으로 나누어서 제주도 언어의 特異性이나 固有性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면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민속적 영역은 특수성, 혼합성 및 보편성으로 나누어서 특수성이 많을 때, 사회·문화적 영역은 전통보수성, 절충성 및 현대진보성으로 나누어서 전통보수성이 많을 때, 정치·경제적 영역은 독자성, 상호의존성 및 종속성으로 나누어서 독자성이 많을 때 正體性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假定과 構想下에서 만들어진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構造의 分析的 模型은 <圖 1>과 같다.

이 模型의 각 領域을 다시 次元別로 나누었다. 言語 영역은 音韻, 語彙, 形態로 民俗 영역은 衣食住, 信仰과 儀禮, 口碑傳承(神話·傳說·民譚·民謠) 등으로, 社會·文化 영역은 家族·親族·婚姻, 地域共同體와 社會組織, 價值觀과 社會의 性格 등으로, 政治·經濟 영역에서는 地政學的 조건과 정치·행정, 生態的 조건과 산업·경제 및 정치·경제의 발전 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 논의는 이 模型에 따라 제주도의 言語, 民俗, 社會·文化·政治經濟 영역에서 나타나는 特性이나 特異性을 각 영역의 次元別로 찾아내려고 한다. 그



〈圖 1〉 濟州島住民의 正體性構造의 分析的 模型

리고 正體性的의 有無도 이 模型에 입각해서 제주도과 타지방간에 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2) 研究方法

연구방법은 文獻調査研究과 經驗的 調査研究法이었으며, 文獻調査研究은 文獻調査와 內容分析法를 병행하였다. 經驗的 調査研究은 質問紙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觀察法과 面接法을 이용하였다.

文獻調査를 통해서 正體性的의 意味와 形成 및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제주도에 관한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각 영역과 차원별로 제주도적인 것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內容分析法를 이용하여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과 〈民譚과 說話〉의 내용을 主題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과 基層文化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經驗的 調査에서 주로 사용한 質問紙法의 경우, 質問紙의 제작은 각 영역별로 제주도의 특성이나 제주도에만 특이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와 전문가 15인의 자문과 문헌조사를 통해서 제주도의 특성을 찾아내었다. 각 次元에 해당되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問項試案을 작성하여 몇차례의 검토를 거쳐 削除·修正·補完을 한 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였으며, 背景

調査 7문항, 주민의 정체성이냐 의식 92문항, 그리고 2개의 誤意度檢證問項 등 총 101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문항들의 측정은 각 문항마다 5단계의 反應答紙가 주어지는 Likert식이다. 標集은 먼저 행정구역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그것을 다시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로 나누어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17개이며 지역별 질문지 실시 대상수는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정하였다. 또한 10대와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남녀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였으며 대학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실시 방법은 個別實施와 集團別實施의 두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을 제외한 전 대상은 개별실시를 하였으며 학생들은 집단별 실시를 하였다. 개별실시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생 42명에게 부탁하여 1988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실시 회수하였다. 실시대상수는 1,100명이었으며 회수된 수는 1,016명이었다. 표집된 총 1,016명 중 질문지 全問項에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誠意度檢證問項'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902명이었다. 蒐集된 資料의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統計値는 百分比(%)와 χ^2 檢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충하고 질문지법으로 조사된 특성들에 대하여 좀더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觀察法과 面接法을 병행하였다. 觀察對象地域은 翰林邑 洙源里였고 면접법은 準標準化面接을 하였으며 대상은 22명이었다.

II. 正體性的 意味와 形成(省略)

1. 歷史的 背景
2. 地理的 特性

III. 濟州島의 歷史的 背景과 地理的 特性(省略)

1. 正體性的 概念
2. 正體性的 形成過程

IV. 言語的 特性과 正體性(省略)

1. 音韻
2. 語彙
3. 形態
4. 言語에 나타난 正體性

V. 民俗的 特性과 正體性(省略)

1. 衣食住
2. 信仰과 儀禮
3. 口碑傳承(神話·傳說·民譚·民論)
4. 民俗에 나타난 正體性

VI. 社會文化的 特性과 正體性(省略)

1. 家族·親族·婚姻
2. 地域共同體와 社會組織
3. 價値觀과 社會的 性格
4. 社會文化的 正體性

Ⅶ. 政治·經濟의 特性과 正體性(省略)

- | | |
|-------------------|------------------|
| 1. 地政學的 條件과 政治·行政 | 2. 生態的 條件과 產業·經濟 |
| 3. 政治·經濟의 發展 | 4. 政治·經濟의 正體性 |

Ⅷ. 要約 및 結論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에 나타난 정체성을 보면, 音韻, 語彙, 形態에 대해서는 제주도 언어의 특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音韻’이 고유성을 많이 상실했고 語彙와 形態는 비슷하나 어휘 분야가 고유성이 조금 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언어 일반’에 대해서는 높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주민의 20대 이하도 제주도에 10년이상 살고 있는 타지방 출신 보다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어에 대한 정체성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音韻, 語彙 및 形態에 대해서는 50대 이상과 40대 이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언어 일반에 대한 정체성은 30대 이상과 20대 이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40대 이상과 30대 이하 사이에는 언어적 정체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民俗에 나타난 정체성을 보면, 민속 분야에서 특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 주민과 타지방 출신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것은 衣食住와 공동별초이며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食生活이다. 해너복(73.2%)과 갈옷(79.4%)에 대한 기억, 곤밥 먹기가 힘들었던 기억(73.3%)과 돌래떡·찐떡·빙떡을 먹었던 기억(80.9%), 생선국과 자리회를 좋아하고(78.4%) 호박 넣어 끓인 갈치국을 좋아함(72.6%), 초가집과 돌담에 대한 친근감(85.7%), 초가집에 상방(74.8%)과 굴묵(75.7%)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낌, 공동별초에 대한 선호(80.3%) 등에는 제주도의 특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대별로 30대 이상은 의식주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 이하는 특수성이 많이 약화되어 혼합성을 보이고 있고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社會·文化에 나타난 정체성을 보면, 家族·親族·婚姻의 경우 分家主義 전통은 50대 이상에서 강한 전통보수성을, ‘장남이 꼭 부모를 꼭 모시지 않아도 되고 구분상속에 대한 선호’는 30대 이상에서 전통보수성을, ‘부부중심가족에 대한 선호’는 50대 이상에서 전통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父系親과 母系親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과 ‘자녀로부터 독립의 의지’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均分相繼의 의지’는 전세대가 전통보수성을 보이고 있으나 6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部落內婚’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가족·친족·혼인 전체로 볼 때 세대가 올라갈수록 절충성에서 전통보수성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20대 이하는 57.1% 수준에서 절충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30대 이상에서 가족·친족·혼인에

대한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공동체의식의 경우, 가까운 이웃 사람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고 있으며(77.8%), 주로 농촌에서는 일을 할 때 수놓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79.3%) 계를 들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45.9%) 것으로 보아 더불어 같이 살리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의식에 대한 정체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국졸 이하이며 40대 이상인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의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의식의 경우, 전통적인 제주도 농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식주에 거의 차이가 없는 평등사회였다. 복식의 평등(58.4%), 노동의 평등(71.2%) 및 남녀의 평등(81.0%)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온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 출신이 타지방 출신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상과 30대 이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주로 40대 이상에서 정체성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價値觀의 경우, 三無精神과 조양정신, 강인과 검소, 자립심과 곤난극복의지 및 독립심 등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89% 이상)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39.7%)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열등의식(9.1%)은 거의 없고 육지사람과 대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일반에 대해서 보면, 제주도 문화에 대한 호감(80.9%), 제주도 문화에 대한 긍지(76.3%), 제주도 사람들이 해놓은 일에 대한 자부심(62.3%) 등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문화 일반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政治·經濟的 정체성을 보면, 정치·행정과 정치발전 및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이 타지방 출신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정책결정에 참여의지는 제주도 출신(71.5%)이 타지방 출신(46.1%)보다 월등하게 높게,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 인식은 제주도 출신(83.4%)이 타지방 출신(70.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 출신은 제주도의 정책결정에 참여의지가 매우 높고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지의 유무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제주도 주민으로서 주민의식은 강하다고 하겠다.

自我正體性을 보면 대부분의 제주도 주민들은 제주도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느끼고 있고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자녀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53.7%)으로 보아 제주도 주민으로서의 自我正體性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하겠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보면, 언어에 대한 정체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정체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 높으며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속의 경우 의식주에 대한 정체성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게,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30대 이상에서 정체성이 많이 유지되고 있다. 민요에 대한 정체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다.

사회·문화의 경우 가족·친족·혼인에 대한 정체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5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고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지방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면서 特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할머니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 <호박을 넣어 끓인 갈치국을 먹는 것>,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分家를 시키고 한 울타리 안에 노부모와 결혼한 자식이 같이 살면서도 炊事를 따로 하는 것>, <아들들에게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을 均分하는 것> 및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의 限界點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타지방 출신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것과 제주도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주도 출신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밑바탕에 있는 정신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연구가 보편되었으면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과 타지방 출신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서 政治·經濟的 正體性의 有無는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섬 이동설화 고

—비양도 전설을 중심으로—

玄 丞 桓(濟州大 講師)

1. 문제의 제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비양도는 중국 쪽으로부터 조류에 떠내려 한림읍 앞바다에까지 와